

# 교환학생 보고서

|       |                                                 |     |          |      |
|-------|-------------------------------------------------|-----|----------|------|
| 이름    | 한 글                                             | 김도엽 | 소속(학부/과) | 경영학과 |
| 파견 학기 | 2019년도 2학기                                      |     | 파견 국가    | 프랑스  |
| 파견 대학 | 폴 레오나르도다빈치 대학(Pole Leonard de Vinci University) |     |          |      |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생이 되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 싶었고 외국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 사고를 하는지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기에 지원했습니다.

##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상대교 구비서류에는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기위한 절차라 TOEIC 800점 이상의 성적(현지에서는 B2레벨로 명칭함) 혹은 현지학교에서 보내주는 양식에 맞춰 우리 학교 어학관련 교수님이나 원어민 선생님께 받은 확인증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프랑스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프랑스대사관으로 비자발급신청을 하기 전 캠퍼스 프랑스라는 기관을 먼저 거쳐가야 합니다. 캠퍼스 프랑스 홈페이지에 관련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캠퍼스 프랑스의 면접과 캠퍼스 프랑스의 도장이 찍힌 학교 등록증 발급까지 마친 후 그 외의 구비서류를 들고 프랑스 대사관으로 비자발급신청을 하러 가야합니다. 관련 구비서류 또한 프랑스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으로 비자발급신청을 하러갈 때 프랑스 거주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신청전에 거주할 곳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가 불명확할 시 임시 거주지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1년 이상 거주를 계획할 경우 현지에 가서 거주지를 얻는 것이 좋겠지만 한 학기만 수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미리 거주지를 모두 계약한 상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항공권 또한 가급적 캠퍼스 프랑스 면접 전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적어도 비자발급신청을 하러 프랑스 대사관으로 가기전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수강신청은 현지학교에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구글 폼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다만 개강 후 수강할 과목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미리 모든 과목을 수강신청 한 후에 현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고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해당 학교의 경우 기숙사가 없고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학교근처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도 현지학교에서 이메일로 자세히 보내주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 비용은 대체로 약 650유로~750유로 정도입니다.

###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폴 레오나르도다빈치 대학은 우리학교의 글로벌관 크기보다 조금 더 큰 한 건물의 대학교입니다. 학교는 파리 시내가 아닌 파리의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근처 라데팡스라는 큰 역이 있기 때문에 파리 시내에 거주한다고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 이내로 통학 하는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가 16구 원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생활할 시 편도 45분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학교건물 내부에는 식당과 마트가 있고 지하에 체력단련실도 위치해 있습니다. 도서관과 같은 개인이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는 없지만 Learning Centre라는 이름으로 조별과제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있습니다. 근처에 크고작은 마트와 식당들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으며 은행을 비롯한 필요물품을 살 수 있는 큰 쇼핑몰도 도보 10분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봄 여름엔 날씨가 맑고 때로는 많이 더울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은 맑은날씨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일주일에 3,4일은 비가 오고 파리시내보다 학교가 위치한 라데팡스 지역의 기온이 좀 더 낮습니다.

###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수강신청을 한 후 현지에서는 수강할 과목을 삭제할 수만 있고 추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과목에 조별과제와 발표가 포함되어있고 기말시험을 단어 3000자 분량의 레포트로 대체하는 수업도 존재합니다. 현지학교에서는 학점을 ECTS라고 명칭하며 총 20ECTS 중에서 최소한 10ECTS를 수강해야 합니다. 과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한 과목당 2 혹은 3ECTS이며 한국처럼 모든 과목들이 일주일에 몇시간씩 반드시 수업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목은 3ECTS임에도 불구하고 한학기동안 5번의 수업만 스케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2ECTS인데 매주 수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적인 스케줄 때문에 개강시 모든 과목들의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달 전이나 최소한 일주일 전에 다음 주의 강의 시간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적을 매기는 것은 한국과는 다른방식으로 성적을 매깁니다.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퍼센티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같지만 한 과목의 만점은 20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10점을 넘으면 그 과목은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보상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들어 비슷한 성격으로 묶여있는 두 과목의 경우 한 과목이 6점으로 패스를 못받을 상황에도 다른 과목을 14점으로 패스했다면 남은 4점을 다른 과목으로 옮겨 두 과목 모두 패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출석의 경우 온라인으로 출석체크를 진행하며 각 과목당 출석점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석이 12번 이하일 경우 어떤 불이익도 없지만 12번을 초과할 시 앞서말한 보상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16번 이상 결석시 제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프랑스의 경우 물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달에 최소한 100만원정도 생활비로 생각해야 합니다. 외식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파리의 경우 프랑스 중에서도 집값이 매우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한달에 600유로대에 집을 구하는 것은 힘들 수 있으며 파리는 건물들이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월세에 비해 시설이 그다지 좋지 못한 집도 더러 있습니다. 직접 가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계약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리는 골목마다 무인 세탁방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탁기가 포함된 집을 추천드립니다.

###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파견대학 국제팀에서 교환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주 운영합니다. 파리투어나 교환학생들을 위한 파티를 열기도 하고 교환학생끼리 서로의 나라를 소개하고 프랑스 학생들을 각자의 본래 학교로 교환학생을 올 수 있도록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국제팀에서는 교환학생들이 파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교내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으며 지하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같은 공간은 없으며 조별과제 하기에 적당한 공간이 Learning Centre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축구장, 농구장, 강당과 같은 장소는 없습니다.

####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EU국가 내의 학생들과 Non-EU국가 학생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모국어에 대한 영향으로 영어 발음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지학교에서는 교내 출입을 위해 출입증을 발부하는데 출입증을 국제학생증으로 발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아 갈 필요는 없습니다.

####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이번 학기 파리에서의 교환학생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길다면 긴 시간을 살아봄으로써 이들이 가진 문화적 배경과 사고의 바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이 어떤 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또 어떤 점이 좀 더 개선이 필요하고 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비단 국가의 시스템과 인프라 뿐만 아니라 같은 경영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국가별로 여러 가지 차이를 두고 있었으며 유럽권의 학생들의 경우 여러 나라가 한 대륙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지 좀 더 현실적인 감각, 예를 들어 국제기업에 대한 배경지식과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관심은 학점을 위해 교과서적인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점이라 생각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도로서 기업을 운영 하는데 있어 단순히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 국제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